일본 면방 각사의 신상품 창조 솜씨들(14)

미마스의 링 방적 솜씨 - 독특한 장식사로 판매 호조

미에(三重) 현에 있는 미마스는 링 정방기만을 돌리고 있는데 장식사(fancy yarn)가 좋은 평을 받고 있어, 방적 각사가 실 판매로 고전하고 있을 때도, 새로운 상권을 개척하고 용도를 개발함으로써 판로를 넓혀 해마다 판매를 늘리고 이익도 늘어나 계속 경영을 잘 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1kg의 극소 로트의 주문도 받아 주며, 단납기 소로트 시스템과 타사와는 판이하게 다른 형상 변화사에 정성을 쏟으며 판매하고 있어 고객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강점으로 되어 있다.

그들 중에서도 주력 소재는 형상 변화가 심하여 슬럽의 크기나 길이가 크게 변하는 특징이 있는 “스라롬”과 형상의 변화가 얌전한 “나스라”가 있으며, 원료에도 정성을 들이고 있어 멕시코산, 짐바브웨산 원면이나 오거닉 코튼 등의 원면을 지정하여 주문할 수도 있다. 순면뿐만 아니라 재생 폴리에스터나 텐셀 등의 화합섬 혼방과 같은 다채로운 소재도 갖추고 있다. 특히 마 혼방은 마의 붐 영향을 받아 인기 있는 소재 중의 하나이다. 원래 마 원료를 사용한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 장기였으므로, 손이 많이 가는 품종에도 다채로운 마 혼방 형상 변화사를 갖추고 있다.♣